

언남리유적 철제재갈의 제작기술

정광용, 이수희, 범대건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Manufacturing Technology of a set of Iron Bit from Eonnam-ri site

Kwang-Yong Chung, Su-Hee Yi and Dae-geon Beom
*Department of Conservation Scienc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430
Hapjung-ri Kyuam myeon, Buyeogun 323-812, Korea*

한신대학교에서 조사한 언남리유적은 구릉의 사면이 부채꼴 형태로 감싸는 듯 한 형태로 배치되었다. 이 유적은 수혈, 구상유구, 폐기장, 건물지, 적석유구, 할석유구 및 소형수혈군 등 68기의 각종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토기, 자기, 기와, 철기, 청동기 및 300여점에 달하는 각종 유물과 함께 출토된 철제재갈은 이 시기의 문화 복원에 획기적인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재갈은 말의 입에 청동이나 철로 된 재갈쇠를 물리고 뒤에 끈을 연결하여 말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馬裝具이다. 보통 재갈은 재갈쇠(銜), 재갈멈추개(鏡板), 고삐이음새(引手)로 구성된다.

신라·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재갈은 지금까지 주로 재갈멈추개의 형태와 각 부위별 특징 그리고 그 연결방법에 따라 내용을 세분하고, 이들 각각의 계통과 편년을 설정하는데 주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고찰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이웃 일본에서 이들 출토유물에 대한 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되어 온 바 있다.

백제의 마구는 王城인 한성과 웅진, 사비에서 출토된 예는 극히 드물고 신봉동고분군을 비롯한 금강유역과 영산강유역 등에 분포하는 지방고분군에서 출토되어 왔다. 최근 봉명동과 두정동유적에서 백제시대 초기 마구가 다수 발견되어 백제 초기마구의 기원이 鮮卑系馬具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언남리유적의 철제재갈과 유사한 재갈은 부소산성 출토 청동·철제재갈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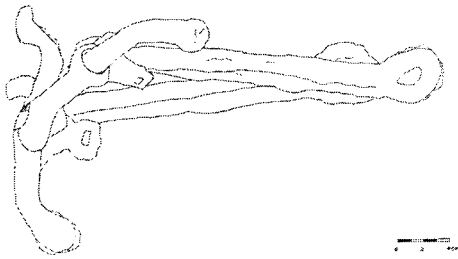
본고는 언남리유적 철제재갈의 종류와 명칭, 방사선투과조사, XRF 비파괴분석 등을

실시하여 은입사 방법과 재갈의 제작기술을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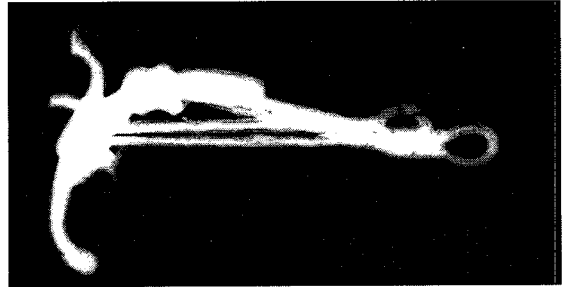
언남리 재갈은 표(鑣), 함(銜), 인수(引手) 모두 다 棒形의 한 가닥으로 만들었으며, 표의 형식에 따라 S자형 표비, 인수(引手)의 형식에 따라 二條線引手로 구분된다. 그리고 함의 외환이 이중환으로 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방사선투과조사 결과, 입사 문양이 전체적으로 시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부분적으로 입사 문양이 남아 있다. 입사 문양은 재갈멈추개와 고삐이음새에 서로 다른 문양이 입사되어 있다. 재갈멈추개의 인수부분에는 화염문이 시문되어 있고, 고삐이음쇠에는 운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입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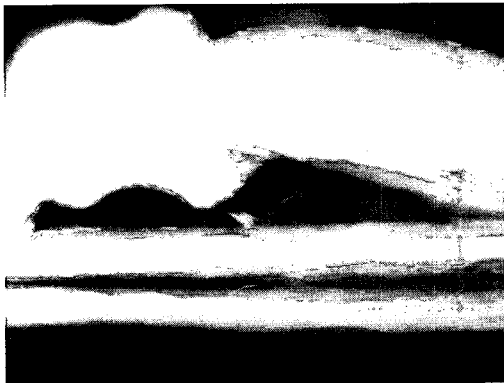
입사 재료는 XRF, XGT 분석결과 은 성분이 50% 이내로 확인되었다. 입사 방법은 철표면에 흠을 파고 은사(銀絲)를 박아 넣은 후, 표면을 일정한 방향으로 연마하여 제작한 선입사기법(線入絲技法)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언남리재갈 실측도면



[그림 2] 입사된 재갈의 방사선투과사진



[그림 3] 재갈멈추개고삐이음쇠 입사문양



[그림 4] 고삐이음쇠 외환의 입사문양